

다한영농조합법인, 계란 최초 ‘소시모 우수 브랜드’ 선정

- ‘1+등급 특급란 행복예감’ …계란 품목 최초 · 유일 선정 -



◀ 업계 최초로 계란 브랜드 인증을 받고 축하를 받고 있다.(좌부터 본회 오세을 회장 다한영농조합법인 이만형 조합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 이하 다한)이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이 선정하는 ‘2017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에서 계란으로는 최초로 선정됐다.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13회 우수브랜드인증발표회’에서 양계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계란이 최초로 우수브랜드 인증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2005년부터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인증, 선정해온 소시모는 그 동안 한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왔지만 계란을 인증품목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다한이 생

산하는 계란브랜드 ‘행복예감’이 전국의 양계농장을 모두 제치고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다. 소시모는 2016년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평가를 토대로 총 41개(한우 26, 돼지 14, 계란 1) 브랜드를 2017년 인증 브랜드로 선정했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의 인증기간은 2017년 1월 ~12월(1년)이다.

소시모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했는데 조합원 전농가의 HACCP 인증 획득, 공동브랜드를 통한 GP센터 운영, 철저한 사양관리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수도권 2세대 양계인들이 모여 설립한 다한은 11개 농장(길샘농장, 함일농장, 칠성농장, 영생농장, 영일농장, 대승농장, 이천농축원, 한성농장, 갈미농장, 송오농장, 가온농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한은 모두 11개 농장으로 150만수의 사육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사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농장이 HACCP 인증(2008년)을 받는 등 사양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다한은 산란계 사양관리

■ 다한영농조합법인 연혁

- 다한영농조합법인 설립(1999년)
- '2050란' '행복예감' 계란브랜드 개발 · 상표 등록(2000년)
- 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고려대학교 BK산학협동 추진(2001년)
- lgY면역항체 함유계란에 대한 특허 획득(2002년)
- 충북대학교 조류질병학실 산학협동시스템 구축.
- 양계전문동물병원과 질병콘트롤 컨설팅 시스템 구축(2004년)
- 국내 최초 양계자조금 제도 시행(2005년)
- 광주시민의 날, 도자기 축제 등 지역행사 참여(2006년)
- 광주시 농축산물브랜드 '자연채' 인증(2007년)
- 전 조합원 무항생제 축산물친환경인증.
- 전 조합원 산란계 HACCP인증(2008년)
-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축산물 'G마크' 인증.
- 계란집하업 등록. 경기도지역 학교급식 시행(2009년)
- 다한집하장 준공계획 수립(2013년)
- 다한계란 집하장 준공(2014년 12월12일)
- 다한집하장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지정.
- 다한집하장 친환경 인증. 축산물 등급판정시행장 지정(2015년)

통일, 사료 통일, 건강한 병아리 통일, 질병컨트롤 통일 등 이른바 '4통'을 실현하고 있다.

다한의 계란브랜드 '행복예감'은 △국가공인 축산물품질연구원 1+등급 판정 △경기도 우수 축산물 'G마크'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 HACCP 인증 △경기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인증 등 까다로운 품질검사를 모두 통과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20주~50주 사이의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만 공급하는 다한은 혈반(알 내부에 빗덩이가 생기는 것) · 파각(껍질이 깨진 경우)검출기를 통해 불량계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G마크를 통해 경기도 400개 학교에 급식으로 제공하며 대형 마트 등에서 소비자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만형 조합장은 “모든 조합원이 한 가족처럼 도와주고 노력해 준 것이 오늘과 같은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위생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란도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계**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